



[투데이갤러리]안창홍의 '매화'

승인 : 2020-05-24 10:27:23



매화(53×72.7cm 캔버스에 유채 1993)

아시아투데이 전해원 기자 = 안창홍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살았던 터라 남들보다 조숙했다. 고등학교 시절 규칙적인 생활과 제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그는 학업을 포기했으나 미술선생님 덕분에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그는 예술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얻는 지식으로 충족되는 게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대학을 가는 대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했다.

안창홍은 1980년대에 참여했던 '현실과 발언' 활동으로, 소위 민중미술 작가로 구분되기도 한다. 강렬하면서도 확고한 자기만의 작업 세계를 인정받아온 그의 작품은 인간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본능이나 욕망의 기제에 관한 부정적인 것들을 표출시킨다. 하지만 매우 독특한 작가적 면모와 함께 섬세하고 정교한 감수성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

케이옥션

전혜원 기자 summerrain@asiatoday.co.kr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